

민주 “단 한 표라도 더…” 국힘 “단 한 석이라도…”

총선 D-1 광주 후보들 마지막 호소

‘4·10 총선’을 목전에 둔 광주지역 여야 후보들이 마지막 지지 호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후보들은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의 열기에 더해 본 투표일에서도 지지를 호소하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저마다 골목을 누비며 사전 투표를 아직 하지 않은 숨은 표를 찾거나 무당(無黨)층 마음을 잡기 위해 막판 바닥 표밭 갈기에 여념이 없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광주지역 후보 8명(동남갑 강현구·동남을 박은식·서구갑 하현식·서구를 김운·북구갑 김정명·북구를 양종아·광산갑 김정현·광산을 안태욱)은 8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합동 유세를 하고 ‘광주 발전을 위한 힘 있는 여당 후보’ 선별을 호소했다.

16년 만에 ‘불모지’ 광주·전남 전체 선거구에 후보를 낸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호남 구애’를 펼치면서 표밭을 갈아왔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광주와 전남에 기성 보수정치인이 아닌 새롭고 참신한 인물을 발굴, 후보로 내는 등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선거막판까지 바닥 표심 하나라도 더 잡기 위해 올인하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날 합동 유세 현장에서 광주·전남 한 석이라도 얻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들의 합동 유세는 무당층의 표심을 사로잡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후보들은 막판 읍소(嗚呼)에 힘을 쏟고 있다.

후보들은 “시민들께서는 광주에서 40년간 독재해 온 민주당을 견제하는 당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40년 일당 독점으로 민주당은 지금까지 뭘 했나”라며 “광주·전남에서 국민의힘에 단 한 석이라도 준다면 광주·전남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남 인재 등용,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대통령실과 중앙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후보들은 또 “김대중 대통령 이후 호남은 제대로 된 대통령감이 없었다. 호남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

부동층 잡기 ‘읍소 작전’

국힘, 5·18광장서 합동 유세

“힘 있는 여당 후보 선택해달라”

민주 후보들 숨은 표 찾아

골목·상가 돌며 유권자에 인사

고 있는 민주당이지만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 출신 정치인들은 모두 ‘비명횡사’했다며 “우리가 광주의 미래를 위해 가장 해야 할 일은 ‘인재’를 키우는 일이다. 국민의힘이 광주의 힘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각자의 지역구 현장에서 ‘숨은 표’를 찾아다니는 등 노력하고 있다.

동남갑 정진욱 후보는 지역구순회하면서 인사와 유세차 연설을 이어갔다. 동남을 안도걸 후보는 선거구 골목을 돌고, 차량 유세 등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등 한 명이더라도 더 만나기 위해 애썼다.

서구갑 조인철 후보는 시장과 백화점 인근에서, 서구를 양부남 후보는 중학교 인근 골목 상권 민심을 살피는 등 현장에서 유세 총력전을 펼쳤다.

북구갑 정준호 후보는 지역 내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잇달아 방문했고, 북구를 전진숙 후보는 상가를 돌며 인사를 이어갔다.

광산갑 박관택 후보와 광산을 민형배 후보는 이탄희 의원 잔소와 함께 송정역에서 합동 유세를 진행했다. 이들은 1시간 동안 합동 유세를 한 후 동네를 돌아다니며 한 표를 호소했다.

녹색정의당 강은미 서구를 후보는 늦은 시간까지 사회복지관 배식 봉사, 골목 인사 등을 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광산을 후보도 신창동 우체국 사거리, 신원마을 아파트 사거리, 첨단 LC타워 사거리 등 지역구 내 ‘핫 플레이스’를 돌며 유세했다.

진보당 윤민호 북구를 후보는 노인복지타운을 찾아 인사하고 차량 이동 유세를 이어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평화에 투표합시다” 광주YWCA 회원들이 8일 광주시 북구 유동사거리 일대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거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리츠가 PF부실사업장 매입해 임대주택 전환

국토부, PF 지원방안 설명회

정부가 신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택 사업장을 주택도시보증기금이 투자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전환한다.

토지 매입을 위한 사업 초기 대출인 브릿지론마저 갖지 못해 더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주택 사업장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건설사, 시행사,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지난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활용해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전환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사는 사업 초기 브릿지론을 받아 토지를 사들이고, 인허가 뒤 착공 단계에 들어가면 본 PF 대출을 받아 고금리인 브릿지론을 갚고 사업을 이어나간다.

그러나 최근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도산 위기에 몰린 사업장이 늘어나자,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로 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임대주택도 확보하겠다

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에는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보증기금’과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한다. 민간의 출자 지분은 최소 6%로 설정될 전망이다.

분양 아파트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려던 민간 사업자가 리츠에 토지를 판 뒤 1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구조다.

국토부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모를 시작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에는 세제 혜택을 줘 미분양 해소를 꾀한다.

이날 국토부는 CR리츠의 세제 혜택 대상은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정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재개발·재건축 속도 높일것”

尹,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일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추진 상황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점검하고자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잘 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5세→8세까지 확대

초2 부모도 2시간 단축근무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8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초등학교 2학년생 자녀를 둔 공무원 부모라면 근무 시간 중 매일 2시간씩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인사혁신처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가 공무원에게 하루 최대 2시간씩 단축 근무 혜택을 주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이 현행 5세 이하 자녀에서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로 확대된다.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 기간도 현재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이 기간 공무원 육아시간 사용자는 하루에 2시간씩 유급휴가를 사용해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육아를 위해 2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2시간 일찍 퇴근하는 등의 방식이다.

인사처는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다자녀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를 기존 규정보다 더 오래 쓸 수 있게 된다.

현재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주어지는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은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해 유급 휴가 일수를 늘려준다. 가령 자녀가 3명이라면 유급 휴가 일수는 4일, 4명이라면 5일이 된다. /연합뉴스

총선 ‘대파 논란’에 농민들 눈물	▶6면
프로야구 전망대 - KIA, LG와 홈 3연전	▶18면
동네책방 나들이 - 목포 ‘고호의 책방’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진화, 그 이상의 새로움

The new E-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4-5001 & 광주 인중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방울대로 565(도천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 220 d 4M EX · 배기량:1999, 공차중량:1975, 자동9단, 복합연비:15.4(도심연비:13.6, 고속도로연비:18.4), 등급:2, 복합CO2 배출량:122
· E 300 4M EX · 배기량:1999, 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4(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300 4M AMG line · 배기량:1999, 공차중량:1900, 자동9단, 복합연비:11.4(도심연비:9.9, 고속도로연비:14.6), 등급:3, 복합CO2 배출량:147
· E 450 4M EX · 배기량:2999, 공차중량:1970, 자동9단, 복합연비:10.5(도심연비:8.9, 고속도로연비:13.4), 등급:4, 복합CO2 배출량:1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이미지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